



현대위아의 한 직원이 IRIS를 이용해 공장기계를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대위아

러시아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 소개

현대위아 '이노프롬 2018' 참가

현대위아가 러시아 최대 규모 산업박람회인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를 발표한다.

현대위아는 9~12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 '이노프롬 2018'에 참가한다. 이노프롬 전시회에 처음 참가한 현대위아는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를 러시아 고객들에게 소개한다.

IRI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공장기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공장기계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물론 15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

를 이용해 기계의 온도·습도·유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공장기계를 경남 창원시의 현대위아 기술지원센터에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대표 공장기계 'XF6300'도 함께 선보인다. XF6300은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기종으로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소에서 개발을 주도한 제품이다. 항공과 의료 분야 등 중소형 정밀가공 시장 수요가 높은 유럽 제조업 시장을 겨냥해 완성했다.

현대위아는 XF6300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모델 'XH6300'과 'LM1800TTSY'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스마트워치용 아몰레드패널 제패 LGD, 세계시장 점유율 41% 차지

애플 공급패널 1475만대 중 LGD, 지난해 1064만대 출하

지난해 전세계 스마트워치용 AMOLED(아몰레드·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점유율 1위에 올랐다.

9일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64만대의 스마트워치용 AMOLED 패널을 출하, 총 4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895만대를 출하하면서 2위(34.8%)를 기록했고, 중국 에버디스플레이(417만대·16.2%)와 AUO(147만대·5.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음 중소형 올레드 패널 사업에 뛰어든 중국 BOE(Beijing Oriental Electronics)는 약 38만대(1.5%)로 5위에 올랐다.

한편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용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한 것은 미국 애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한 스마트워치용 올레드 패널은 총 1475만대 수준이다. 이중 70%가 넘는 1060만대를 LG디스플레이가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신제품에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올레드 패널을 탑재할 것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LG와 애플의 제휴에 관

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복수의 외신은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을 200만~400만개 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 보도에 대해 확인하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전세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시장의 강자인 애플을 패널 공급 대상 고객으로 계속 확보할 경우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실적 부진에서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삼성리서치, AI 기계독해 능력 국제대회 우승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리서치가 인공지능(AI) 기계독해 능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9일 삼성전자는 삼성리서치가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최한 마르코 기계독해 테스트, 미국 워싱턴대가 진행한 트리비아 테스트에서 잇따라 선두에 올랐다고 밝혔다.

마르코와 트리비아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워드 등과 함께 세계 5대 AI 기계독해 테스트로 꼽히는 대회다. 글로벌 IT 업체들과 각국의 우수 대학들이 참가해 첨단 AI 기술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계독해는 AI 알고리즘이 질문을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해 스스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질문에 대해 여러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가장 알맞은 답안을 스스로 제시한다. 삼성리서치는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한 콘즈넷(ConZNet)이라는 자체 AI 알고리즘을 들고 대회에 참가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삼성리서치 언어이해팀 김지희 상무. /삼성 뉴스룸

강화학습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이다. AI의 핵심인 기계학습 가운데서도 가장 고도화된 학습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리서치 언어이해팀의 김지희 상무는 "실생활에서 이용자들에게 간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함께 제품, 서비스, 고객 대응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 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여권·차량등록서 농사일까지 AI가 '척척'

코엑스에서 국제인공지능대전

AI 알고리즘·응용솔루션 등 소개 AR·드론·로봇 등 체험공간 마련

대면 서비스 로봇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람객이 "전시 정보 알려줘"라고 말하면 전시에 관한 사항을 화면에 띄워주고 "주변 상황 어때?"라고 물으니 "전시장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있어요"라고 답한다. "볼빨간사춘기 노래 틀어줘"라고 말하면 음악 재생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퓨로는 화면에 사람의 얼굴을 띄워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이며 응대한다. 병원, 카페 등에서 고객 응대, 아이 교육, 집안 모니터링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AI가 생활 속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AI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논의하는 '국제인공지능대전'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9일 찾은 전시회장에는 AI 알고리즘, 응용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드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 학생, 대학 교수 등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 앞에서 가방, 스마트폰, 수첩 등이 인식되는 걸 보며 생활 속에 들어온 AI를 체감하고 있었다.

친근한 AI 서비스 중 하나인 챗봇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전시회장에서 접한 마인즈랩의 뚜봇은 현재 대구시의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카카오 톡플러스친구 추가를 하고 뚜봇에게 "대구 축제 정보 알려줘"라는 카톡을 보내니



관람객들이 트윈의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이 불량품을 골라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구서윤 기자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 정보를 나열한다. 이외에도 여권, 시정일반, 차량등록, 관한 일을 처리한다.

마인즈랩 관계자는 "원래 공무원이 처리했던 단순 업무를 뚜봇이 처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서비스했던 챗봇은 "엄마한테 만원 송금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알아서 돈을 보내준다. 마인즈랩의 자연어 처리, 대화 처리 등 언어지능 영역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나 SNS대화로 계좌이체, 계좌 조회 등 간단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를 구현했다.

한쪽에서는 AI 드론 체험이 한창이었다. 드론이 사용자의 손을 인식해 움직인다. 어린이 체험자가 드론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자 드론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시동을 걸며 날아올랐다. 두 손을 모으면 드론이 앞으로 다가오고 벌리면 뒤로 날아간다. 손가락으로 브이모양을 하자 사진을 찍어준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보냈다.

회피 엑스티드론 사업부 관계자는 "AI 드론은 10m 정도의 범위에서 손의 움직임을 인식한다"며 "사진을 찍고 싶은 순간에 조종기를 꺼내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이용한 스마트팜에도 관심이 쏠렸다. 트윈의 팜아이는 AI 기술을 통해 농가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AI를 통해 온도, 습도, 광량, CO2 등 온실 환경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하고 이러한 요소의 목표 수치를 온실이 작물과 작물의 생육단계, 시설의 성능 및 노후와 상태까지 고려하고 판단한다.

트윈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구 중 약 25%가 귀농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업에 대한 지식 부족"이라며 "팜아이는 귀농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우수한 농가의 생육작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AI이 패턴을 학습하도록 해 어느 지역에서든 균일한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I 대전에서는 전시회, 체험행사도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9일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10일 'AI의 활용'을 주제로 유저 컨퍼런스가 열리고 AI기술을 드론, 자율주행차, 웹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성과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인 'AI융합 아이디어경진대회'의 결선이 10일 열린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전자, 스타일러 스타일링 클래스 열어

패션 인플루언서 등 60명 초청

LG전자가 9일 서울 여의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배우 소유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함께하는 제3회 LG TROMM(트롬) 스타일러 스타일링 클래스를 열었다. 이번 스타일링 클래스에는 다가오는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육아맘, 패션 인플루언서 등 총 60명이 초청됐다. 가족들끼리 센스 있게 맞춰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둥이 엄마이자 목소리 나는 살림으로 많은 주부들의 워너비 아이코인으로 등극한 배우 소유진과 톱스타



LG전자가 9일 배우 소유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함께하는 제3회 LG TROMM 스타일링 클래스를 열었다. /LG전자

일리스트 한혜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자신만의 여름철 의류관리 노하우를 주부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안병도 기자